대출 금리 확 오른다는데 '영끌족' 어쩌나

한은, 내달 빅스텝 시사…주담대 금리 연 7% 근접 '부담 가중'

광주·전남 지난해 생애 첫 주택대출 급증…1인당 1억1000만원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7% 턱밑까지 치솟으면서 '영끌족'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졌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자는 '영끌' 열풍이 불었던 지난해 광주지역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증가율이 전국 최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건수는 1137건으로, 전년(247건)의 4.6배 수준(360.3%↑)으로 뛰었다.

전남 대출 건수도 2020년 248건에서 지난해 597건으로, 140.7%(349건) 급증했다.

전국 평균 대출 건수 증가율은 90.2%(1만1511건→2만1891건)로, 광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광주(360.3%)에 이어 부산(279.1%), 대구(278.3%), 세종(258.8%), 전남(140.7%) 순으로 대출 건수 증가율이 높았고,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8.6%)만 대출 건수가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광주 시민들이 '생애 최초 주택자금'으로 받은 대출 금액은 1282억원으로,전년(283억원)보다 353.0%(999억원) 증가했다. 전남은 230억원에서 673억원으로, 1년 새 192.6%(443억원) 늘었다.

지난해 총 대출액을 대출 건수로 나누면 광주·전남 두 지역민 모두 1억1000만원 정도를 빌린 셈이다.

올해 1~7월 기준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액은 광주 750억원(680건)·전남 327억원(256건)으로, 1인당 대출액은 광주 1억1000만원·전남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더 늦기 전에' 영혼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대출을 받으려는 지역민이 늘면서 광주 가계부채는 전국에서 가장 심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전국 평균(5.9%)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서울을 포함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취약차주는 전체 차주의 6.3%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역시 전국 평균(5.0%)을 웃돌고 7대 도시 최고를 기록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다중채무자 가운데 소득 하위 30%에 드는 저소득층이거나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자를 말한다.

광주지역 차주 1명당 가계부채는 2017년 말 7000만원, 2019년 말 7700만원, 2021년 말 8700만원 등 증가 추세다. 2년 새 광주지역 1인당 빚이 1000만원(13.0%)가량 불어난 것이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도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 턱밑까지 치솟았다. 연말까지 오름세가 이어지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주담대 금리가 연 8%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23일 기준 연 4.380~6.829% 수준이다. 약 두 달 전인 7월16일(연 4.210~6.123%)과 비교해 상단이 0.706%포인트, 하단이 0.170%포인트 올랐다.

한은 자료를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기준금리 조정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7월 기준 78.6%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자영업 다중채무 급증

평균 4.7억 빚더미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써 더 빌릴 곳도 없는 자영업 '다중채무자'가 올해 들어 6개월 사이 45%나 급증했고, 이들의 평균 대출액도 거의 5억원에 이르렀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현재 약 688조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올해 6월 현재 4억6992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지난 연말(28만6839명)과 비교해 불과 6개월 사이 44.7%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는 인원수와 대출액을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 대출 가운데 각 12.8%, 28.4%를 차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

자영업자 '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 시작

30일부터, 8조5000억 규모·최대 6.5% 금리·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화물차나 건설장비 구매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도 사업자 대출로 분류돼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 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대환 신청 접수 후 은행의 보증 심사, 대출기관 간 자료 확인 등이 필요해 실제 대환대출이 이뤄지는 데는 2주 정도 걸릴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대환 대출 신청이 시작되면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칠 것을 우려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 알선 등을 통해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끊이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전, UAE 해저송전망 사업 재원조달 성공

5조4000억원 규모…PF 방식으로 4조3000억원 조달

한국전력은 아랍에미리트(UAE) 해저 송전망 사업에 필요한 38억4000만달러(5조4000억원) 규모의 재원 조달에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 22일 UAE 현지 법인이 모기업의 보증 없이 사업 자체 신용만으로 대출을 받는 프로젝트파이낸스(PF) 형식으로 약 31억달러(4조3000억원)의 차입금을 조달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UAE 해저송전망 사업은 지난해 12월 한전 컨소시엄(한전·큐슈전력·EDF)이 수주한 한전의 첫 해외 전력망 투자사업으로, 중동·북아프리카(MENA) 지역 최초로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HVDC)을 적용한 3.2GW(기가와트) 용량의 해저 케이블 및 변환소를 2025년까지 건설해 향후 35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급격한 금리 인상 등 불안한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도 HVDC의 기술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한국수출입은행,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 국제 상업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재원 조달로 계약 협상, 인허가 획득 등 개발 단계 업무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진입하게 됐다"며 "UAE 해외 송전망 사업이 향후 해외 전력망 투자사업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수출입은행이 금융을 지원하고 삼성물산이 건설을 맡아 개발부터 금융, 건설, 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국내 기업들이 협업한다.

또한 UAE 해저송전망이 준공되면 한전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 등 육상에서 생산한 청정에너지를 해상 석유·가스 생산 설비에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돼 기존의 노후화된 해상 가스 발전 설비를 이용하는 것보다 30% 가량 탄소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전은 올해 미국 괌에서 60㎿급 망길라오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해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한편 198㎿급 우쿠두 가스복합 발전소에 착공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2013년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수주한 1200㎿ 응이손2 화력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준공했다.

한전 측은 "현재 어려운 재무 상황을 고려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되, PF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해 투자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UAE에서 본 HVDC 해저송전망이 준공되면 한전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 등 육상에서 생산한 청정에너지를 해상 석유·가스 생산 설비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약 30% 탄소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쓰담쓰담 플로깅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동훈·왼쪽 4번째)는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가 광주천 일대에서 주최한 '쓰담쓰담 플로깅 데이' 행사에 참여해 후원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직접 주변 쓰레기를 수거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탄소중립 중기 대출금리 감면

광주은행, 신보와 업무협약

광주은행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지역기업에 0.5%포인트 대출 금리를 감면해준다.

광주은행은 지난 23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은행 본점에서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강근 신보 호남영업본부장과 이춘우 광주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해당 기업에 최대 0.5%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탄소중립 실천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상담과 함께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춘우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역 기업에 힘을 실어 환경과 사회·지배구조 개선에 힘쓰는 ESG 경영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ESG 경영에 따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앞서 1000억원 규모 ESG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조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탈석탄·그린뉴딜 협약'을 광주시와 체결하기도 했다. /백희준 기자 bhj@

전남, 농협 임직원 횡령사고 1위 '불명예'

곡성농협 삼기지점 등 5년 간 4곳서 2회 이상 발생

최근 5년간 농협 임직원 횡령사고가 여러 번 발생한 지역농협이 전남에 가장 많았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의원(국민의힘)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농·축협 임직원 횡령 사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7년~2022년 9월) 횡령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농·축협은 모두 12곳으로, 이 가운데 4곳이 전남지역에 있었다.

해당 농협은 곡성농협 삼기지점과 광주축산농협 대불배합사료본부, 백양사농협, 장흥농협으로, 이들 4개 조합에서는 5년여간 두 차례 횡령사고가 일어났다.

한편 농·축협 임직원에 의한 전체 횡령사고는 이달 기준 올 한 해만 총 38건 발생했다. 횡령 금액은 289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여간 발생한 횡령금액이 519억원(212건)인 점을 고려할 때, 총 횡령 금액의 절반 이상(55.6%)이 올 한 해에 집중된 것이다.

이 기간 횡령 피해액 519억원 중 회수액은 전체 금액의 56.5%인 293억원에 불과해 횡령으로 인한 손실이 지역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횡령사고 발생으로 농협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며 "중앙회 관리 감독 강화 등 횡령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3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6	31	32	33	38	40	11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868,856,209	9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5,201,278	66
3	5개 숫자일치	1,484,916	2,898
4	4개 숫자일치	50,000	142,939
5	3개 숫자일치	5,000	2,400,364

대 테러 협력체계 구축 롯데아울렛 남악점(점장 김광희·왼쪽)과 무안경찰서는 최근 협약을 맺고 대(對) 테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예방에 서로 힘쓸 것을 약속했다. 남악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테러 및 재난 모의 훈련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시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제공〉